

고령화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

김동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고령화 사회를 위한 교회역할의 필요성

우리나라 교회는 孝를 중시하는 유교정신을 계승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노인에 대한 보호와 봉사를 게을리 하지 않아 왔다. 해방 이후 비록 외국의 원조와 정부의 지원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양로원과 노인요양원을 세워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居處가 마땅치 않거나 병든 노인들을 모시는 데 교회가 앞장 서왔다.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노년층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으나 사회 일반이 기대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교회가 노인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첫째, 교회는 복지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민간복지자원의 핵심이다. 인간의 福利問題는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복지의 주요 과제이었으나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이제 국가, 개인, 사회가 동시에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국가가 아무리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한다 해도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곳에서는 도처에서 노인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인간의 복지는 국가가 公的인 서비스를 통해 다 책임질 수도 없으며, 또한 국가가 직접 맡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교회는 私的인 민간복지자원의 핵심으로서 인간의 복리향상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소이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은 그리스도의 至上命令이다.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고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는 현실에서 교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난하고 병든 노인에게만이 아니라 사회적 周邊人으로 치부되는 일반 노인에게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적 瓦解理論(Social Breakdown Theory, Kuypers & Bengtson, 1973)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노인 자신마저도 자기를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노인은 거둬들인 악순환의 결과 사회적으로 와해되어 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적응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회는 비교적 풍부한 물질 자원과 헌신적인 봉사자를 통해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셋째, 교회는 건전한 노인문화 창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회의 노인 복지 사업을 역사적으로 보면, 해방 이후 불쌍하고 가난한 노인을 위한 양로 및 요양시설 사업을 전개하다가 8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의 물꼬가 트이면서부터 노인대학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교회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회노인학교연합회’가 이들 노인대학의 운영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계에 이용시설로서 사회복지관 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아 교회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혹은 자원봉사센터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간에 경쟁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활동은 경제적으로 주로 중하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제력이 있고 활동성이 있는 노인도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의 대상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교회가 이제 중상층의 노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노인문화 창달과 노인권의 옹호를 위한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인이 사회적 주변인에서 主流人으로 회복되는 데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넷째, 노인에 대한 봉사와 선교는 노령화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교회의 모든 봉사활동은 결국 선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선교적 봉사라 혹은 봉사적 선교로 이해된다. 노인을 위한 교회의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봉사활동은 우리사회를 휴머니즘이 높은 사회로, 기독교 정신이 널리 보급된 사회로, 결국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건강한 노인만이 아니라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을 보살피는 것은 ‘인생의 의미 있는 마감’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는 당연히 교회의 몫이다. 교회의 노인복지 활동이 교회 노인만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노인들까지도 포함한다면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전해지고 이것은 결국 교회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노인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老權이 강화된다면 노인은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교회들의 노인복지사업의 현주소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허준수, 2001): 1) 지난 반세기 동안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노인복지 분야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참여하거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다; 2) 일반적인 노인복지사업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이 부족하다; 3) 교회 내외의 사회복지전문가를 활용한다거나 지역사회 전문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비전문가인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계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 4) 교단 차원에서 계획되고 운영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드물고 개별교회를 중

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적 물적 차원에서의 자원이 부족하다. 여기에 몇 가지를 추가한다면: 1) 노인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보다 창조적으로 노년기를 영위하도록 돕는 사역이 미미하다; 2) 노인을 도움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노인이 도움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노인에 의한 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이 미미하다; 3) 생을 마감하는 계절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서 안에서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자.

II. 본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과 실천

1.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

1) 성서에 나타난 노인관(老人觀)

성서에 나타난 노인 관련 구절들을 일정한 주제에 맞추어 정리해 보면 그 주제는 ① 공경의 대상으로서의 노인, ② 지혜의 원천으로서의 노인, 그리고 ③ 돌봐 드려야 할 대상으로서의 노인이라는 3개의 큰 범주로 나뉘어진다(김동배, 1995).

① 공경의 대상으로서의 노인(창 20:12, 출 21:15-17, 레 19:3, 잠 17:9, 막 7:10-12, 롬 16:13, 골 3:20, 딤후 5:1-2, 토 10:11-12, 14:13(외경) 등)

부모에게 순종,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이것은 자녀들이 축복받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부모로서는 시부모와 장인장모의 구별이 없다.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② 지혜의 원천으로서의 노인(창 21:1-8, 신 32:7, 삼하 19:31-39, 욥 15:7-13, 시 9:12, 시 92:14-15, 욥 2:28, 고후 4:16, 딤후 2:2-3 등)

사람의 나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니 노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고독하게 지내도록 할 게 아니라 존경하고, 훈계를 경청하고,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 노인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계발하여 후손들에게 영적인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인도 단지 나이가 많은 것으로만 축복일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아래 의인의 삶을 살며,

자식과 후손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③ 돌봐 드려야 할 대상으로서의 노인(사 46:3-5, 말 4:4-6, 딤후 5:4, 딤후 5:9-10, 롬 8:38-39, 약 2:14-17 등)

하나님의 뜻은 인생이 노년이 되어 죽을 때까지 평안히 지내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로서 서로 돕고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노인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사랑과 도움의 대상이다. 특히 늙은 과부들은 자식과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노인목회의 원리

성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봉사와 선교를 계획함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원리는 무엇일까? 노인은 아동이나 청소년과는 달리 그 욕구와 능력이 다양하다. 무심히 보면 노인은 대체로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정서적으로 둔감하며, 사회적으로 무기력한 점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개개인은 그 어떤 연령층보다도 더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노인목회의 원리로서 제안될 수 있는 것이 있다.

Miller(1981)는 노인에 대한 종교적 교육을 위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노인목회의 한 원리로서 제시될 수 있다.

① 깨달음(awareness)을 위한 교육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조건 뿐 아니라 개인적 감정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삶의 한계를 두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년이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까이 다가와 있는 죽음의 느낌, 여생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목, 젊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몸의 기능들....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그 감정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이 "깨달음"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이다.

② 의지적 결단(intentionality)을 위한 교육

늙어감에 따라 맞게 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노인들끼리 서로를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인들은 결정을 내리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의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되,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것이 "의지적 결단"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이다.

③ 일치성(coherence)을 위한 교육

이전세대 그리고 후세대의 삶과 합류되는 연속선상에서 삶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보다 큰 성취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해는 결국 하나님 말씀의 뜻과 능력을 알게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인들은 아직까지 발휘하지 못한 억압된 잠재력과 놓쳐버린 기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기 쉽다. 그들에게 과거와 미래로 연결되는 자신의 삶의 연속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의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일치성"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이다.

④ 상호의존(mutuality)을 위한 교육

노인들의 모든 관계가 '서로 돌보는(caring) 공동체'로서 상호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심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인들은 배우자와 친구들의 죽음에 의해서 그 교제의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노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육체의 질병 못지 않게 고독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존엄성의 상실일 수도 있다. 노인들이 감수하기에 일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 속에는 서로 더욱 사랑하라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이루진, 노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서로 교체하고, 존엄성과 우정과 대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고양곤(1999)은 교회 노인학교의 목표를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교회 노인학교가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이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복지 원리를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만하다.

① 선교의 목적 :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노인들을 노인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한다.

② 봉사의 목적 : 교회가 앞장서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소외된 노인들을 도와주며, 건전한 인생관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기회를 제공한다.

③ 교육의 목적 : 평생교육의 시대적 사명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지역노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적 과제를 수행함으로 사회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

④ 역할회복의 목적 : 노년기에 상실한 역할과 지도력을 회복하고, 사회적응을 활발하게 하며, 보람있는 생활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⑤ 건강의 목적 : 노인들로 하여금 무병장수 하도록 도와주며 각종 취미, 오락, 여행, 대화 등을 통하여 즐겁고 희망찬 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

⑥ 통합의 목적 : 교회내의 노년층을 노인학교에 동참시키므로 소속감을 가지고 노후에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교회생활을 열심히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비신자 노인들을 신앙적 분위기로 유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교를 나누도록 한다.

한편 Becker(1986)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교회의 혁신적 노인사역을 위한 3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는 성도들의 주택문제, 육체적·정신적 건강문제, 범죄에 대비한 안전의 문제, 또한 사회 전 구성원들을 위하여 공의를 구현하는 문제들은 이미 오랫동안 교회의 관심사가 되어오고 있는 문제들인데, 여기에 그러한 문제들에 봉착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는 노인들을 위해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3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① 정보제공과 의뢰(referral)로서의 기능(ministry of information and referral)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어 감에 따라, 지금의 노인들이 젊었을 당시에는 없었던 주택, 법률, 사회복지, 건강, 교육문제들을 대항해 주는 각종 대행사들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도대체 어떤 곳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자신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대행사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기까지 한다. 이런 상황은 교회로 하여금 나이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이미 제공되어지고 있는 서비스를 중복되게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 제공 업체나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노인들을 그 곳으로 연결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업무를 담당할 사람으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 갈 곳이나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전화로 혹은 직접 만나서 해 줄 수 있는, 신망 있으면서 생색내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 중에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전직 사회복지사나 사회과목 선생님,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적격자가 될 것이다.

이런 사업은 궁극적으로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소외된 채 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각종 기관,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쉼터나 양로시설로 연결시키는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옴부즈맨으로서의 기능(ministry of the ombudsman)

옴부즈맨으로서의 기능이란 정보제공과 의뢰로서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능이다. 보

다 특별한 기능이라면 옴부즈맨은 노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관공서에 갔다가 그 미로 속에서 헤매게 되지 않도록 지름길로 인도하고, 꼬인 문제들을 바로잡고, 노인들과 자원봉사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작은 교회에서는 정보제공과 옴부즈맨의 기능을 동일한 사람이 맡아서 처리해도 될 것이다. 옴부즈맨은 노인들에게 찾아가야 할 곳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야 할 사람까지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법에 관련된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특히 유언을 작성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옴부즈맨 기능을 위한 교인 자원봉사자는 교회 내에만 머무르지 말고 보다 넓은 지역사회로까지 연결될 필요가 있다. 옴부즈맨에게는 노인을 공홀히 여기는 마음이 요구되고, 노인들의 욕구를 헤아려 낼 수 있는 훌륭한 인터뷰 기술, 인내심을 가지고 각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는 능력, 그리고 상상력 또한 요구되어진다.

③ 노인권의 옹호자로서의 기능(ministry of advocacy)

기독교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열정이 구원이나 은혜에 대한 열정만큼 뜨겁다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옹호자”로 묘사하고 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의 공의와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伸冤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옹호야말로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의 집단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관심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다. 각 교회는 공의에 관심을 가진 자들 모두가 모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배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교회는 사회의 불공평성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노인들이 의지할 수 있고 공의로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의 휴식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옹호의 주된 기능은 불공평을 바로잡고, 공의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불공평을 예방하는 것이다. 옹호자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꾼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노인들을 법정에서 옹호하여야 하며, 젊은이들 위주로 계획되어지는 모든 환경조건들이 노인들을 배려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옹호자들은 성도들, 특히 노인 성도들을 모아서 옹호자로서의 자원활동 즉, 범죄감시단, 재판감시단, 시청 혹은 사기 기업체 앞에서의 시위단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고무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이제까지 교회가 행해왔던 전통적인 기능들을 넘어 선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의 사역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회 각 구성원의 생활 전반을 배려하는 보호공동체로서, 특히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집단활동으로 그 활동 범위와 방법을 다양화해

야 할 것이다.

3) 노인복지선교 지침 연구

기독교계의 일부에서는 지금 노령화 사회에서 교회가 노인복지선교사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노인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소극적으로 다룰 수 없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을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

① 예배를 통한 노인복지선교

교회는 노인들이 예배의 참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순서에 소외되지 않고 순서의 담당자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교회는 감각기능이나 신체동작 능력이 약화된 노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 보조장비, 비품 등을 제공하여 불편한 점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노인전담 목회자를 두어 노인들의 예배인도는 물론 노인들의 가정심방, 병원심방, 신앙상담, 가정문제 그리고 노인의 죽음준비를 위한 상담과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도와 줄 수 있는 담임목사의 동역자로서의 노인복지 전문사역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년에 최소한 일회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들에 의한 노인헌신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② 선교를 통한 노인복지선교

교회는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 복음화를 특수선교영역으로 설정하여 선교전략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양로원, 요양원, 병원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까지도 선교 매체를 이용하여 그들을 복음화해야 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선교는 노인에 의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노인이 훈련받고 지지받을 수 있다면 불우하고 소외받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선교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선교는 특별히 오랜 목회생활 후에 은퇴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은퇴목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을 통한 노인복지선교

교회를 통한 노인교육은 노인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취감과 자기 실현을 높이기 위한 사회교육학적인 의미가 있다. 교회는 노인들의 영성훈련과 신앙성장을 위한 노년주일학교, 노인주간성경공부반, 노인대학 내지 노인학교, 노인연수 프로그램, 노인교사반, 노인선교반, 노인찬양대 등을 개

설하여 노인들이 교회의 노인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에 있는 노인학교와 자매관계를 맺어 노인 교육프로그램을 상호교환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 노인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노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굵은 활자로 만들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각종 미디어자료와 기자재를 구비하여 활용함이 효과적이다.

④ 봉사를 통한 노인복지선교

교회는 교회에 속한 노인교우들과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위한 그리고 노인에 의한 각종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교회의 노인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봉사사역을 담당할 교회의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봉사지도자를 양성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훈련, 배치, 점검, 보상, 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에 노인간병 담당 전문봉사자를 두어 퇴행성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의료 및 간호봉사를 제공한다. 총회, 노회 또는 개교회에서는 전문직(예: 의사,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은퇴한 노인들을 선발하여 노인복지 프로그램 관리자로 교육시킨 후 각 교회 노인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봉사하도록 할 수도 있다.

⑤ 친교를 통한 노인복지선교

노인들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외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내의 노인이나 지역사회 노인들이 세상적인 향락적 놀이문화와는 다른 차원의 건전한 재미있는 오락프로그램과 친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친교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교회는 배려해 주어야 한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은 배우자의 사별 이후에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야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남은 생애를 더욱 의욕적으로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남녀노인들의 건전한 친교의 장이 되어 주어야 한다. 교회는 독거노인들의 건전한 이성교제와 재혼문제 그리고 성문제까지도 상담하고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재혼의 기회를 얻기 위한 다양한 친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천적인 측면

1)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많은 교회에서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예산도 편성하고 헌신적인 봉사자도 확보하고 있다. 도대체 교회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겠는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및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겠는가? 필자(1995)가 제시한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과 복지서비스의 혼합

변화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인은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낡은 지식과 경험만을 고집하는 노인은 주위로부터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한다. 노인의 학습은 정신작용의 지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인은 대체로 다양한 욕구충족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학습을 위해 모인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교회노인학교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혼합시키는 것이다. 교회는 노인을 위하여 교육과 양육의 역할(educational-nurturing role)을 맡고 있다 (Kuhn, 1977)

② 신자와 비신자의 혼합

젊은이에 비해 노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많은 친구를 갖고 있다. 주로 전국에 있는 3만 여 개의 노인정과 200여 개의 노인회관이 그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신자,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신자는 오히려 지역사회 내에 자신을 돌볼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비신자에 대한 교회의 따뜻한 대접은 좋은 선교효과를 나타낸다. 지역주민을 신자와 비신자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신자와 미래신자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을 고려

인간은 본래 신체와 정신작용이 매우 깊은 상관관계 속에서 기능한다. 신체적 불편함은 곧 정신적 긴장으로 표현되고, 정신적 고통은 곧 신체적 이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질병과 죽음이 다른 인구계층보다 더 가까이 있는 노년기에는 이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다. 삶의 취약한 측면이 증가하는 노년기의 프로그램은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한 프로그램 안에 이 두 요소가 서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운동과 신체적 활동은 정신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학습이나 문예창작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신체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로그램에는 이 두 요소가 항상 포함되어 치료적 효과(therapeutic effect)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④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의 적용

노년사회학에서 가장 잘 인용되는 이론은 서로 상반된 위치에 있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분리

이론(Disengagement Theory)이다. 활동이론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정도와 생활만족도는 긍정적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 이를 활발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리이론은 노화현상과 더불어 사회가 노인을 분리하며 동시에 노인도 사회로부터 은퇴를 원하게 되므로, 노인의 사회적 은퇴는 당연하고, 사회화가 잘된 노인일수록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게 된다는 것이다. 노인집단 안에는 다양한 특성의 노인들이 있어서 어떤 노인은 활동이론에 맞고, 어떤 노인은 분리이론에 더 맞는다. 한 노인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활동이론에 의한 활동을 선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리이론에 의해 철회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인집단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구성원 모두가 다 참여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주 활동성이 적은 집단에서부터 아주 활동성이 높은 집단까지 집단을 분류해서 그 집단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활동이론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예로는 활동적인 서클활동이나 자원봉사가 있고, 분리이론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예로는 회상기법(Reminiscence Therapy)이나 그냥 조용히 좌담하는 것 등이 있다.

⑤ 노인과 젊은이의 혼합

어떤 조직에 노인끼리만 모이면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낙인(stigma)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위 문화론(Subculture Theory)에 의하면, 노인들은 타연령집단을 배제하고 노인들끼리만 상호작용하려 하고, 그러한 노인들은 그들 집단에 맞는 규범과 가치관을 창출해 낸다. 이러한 노인문화는 성, 연령, 인종, 사회계층에 따른 다양성을 약화시키며 노인집단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한다. 만약 그러한 정체성이 젊은층과 차별되면 노인집단은 곧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활동은 때때로 어린이, 청소년, 장년 등 다른 연령층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대간 교육이나 젊은이와 함께 하는 집단활동이 권장된다.

⑥ 다양한 자조집단의 개발

自助(support, mutual-help, self-help)집단은 첫째,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정서적 지지를 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느끼는 불안, 좌절감, 죄의식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벗어나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둘째, 실질적인 도움으로서 정보, 경험, 자원을 교환하고; 셋째, 자신들을 위할 뿐 만 아니라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권익옹호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교회는 사람들이 문제를 호소하고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 성장과 치유를 위한 곳이기도 하다. 노인의 자조집단은 노인의 자율성을 높여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한다.

2) 교회가 개발할 수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형태

교회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노인문제를 중심으로 고려하면 될 것이다. 즉, 빈곤, 질병, 고독, 무위라는 노인의 4가지 고통을 고려하여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다. 사실 교회가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수 없이 많다. 미국 Missouri 주 Kansas City에 본부를 두고 있는 목양센터(Shepherd's Centers of America, 1990)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은 크게 9 가지로 나뉜다. 그것은 ① 정보제공과 의뢰 및 보험신청 보조, ② 재가 서비스, ③ 건강증진 서비스, ④ 삶의 향상 프로그램, ⑤ 교통편의 제공, ⑥ 집단 서비스, ⑦ 권익옹호, ⑧ 재산보호 및 법률 상담, ⑨ 병원 및 요양원 선교 등이다.

여기에서는 노인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혼합한 것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연속체(Continuum of Care) 개념에 의해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보호연속체는 인간이 노년기의 생애주기를 통과하면서 필요하게 되는 욕구를 예상해서 그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서비스를 망라하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표는 보호연속체 개념에 의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분류이다. 가로 열은 노인의 독립성을 나타내며 왼쪽으로 갈수록 독립성이 떨어지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이다. 세로 기둥은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능력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깊은 보호와 개입이 필요하다. 특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위치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표 안에 그려진 선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제시된 서비스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중 교회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보호연속체가 실질적으로 노인 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사회복지학계에서 부단히 개발하고 있는 Case Management(최성재·장인협, 2002)를 활용할 수 있겠다.

<교회가 개발할 수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분류>

↑ 높음	삶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	입소자 소집단 활동 입소자와 결연	노인 홈(무료, 실비, 유료) 노인 아파트 주택공용(home sharing) 교통편의 제공	교양강좌 자원봉사 클럽활동 취미활동 견학, 여행 문예창작 체육대회 공동작업 마을미화작업 일감제공 성교육과 재혼 젊은이와 연합활동 노인권익 옹호활동 엘더호스텔(Elderhostel)
	인식강화를 위한 서비스	병원선교 요양원 선교	가족상담 젊은이 대상 노인 이해 교육 위기개입	목회상담 개별 및 집단상담 정보제공과 의뢰(생활, 건강정보, 노인용품 등) 퇴직계획교육 죽음에 대한 교육 인간관계교육
	신체적 보호를 위한 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우애방문 재가복지서비스 중식제공 자조집단 그룹홈	법률상담 재무상담
	생존을 위한 서비스	요양원 호스피스	독거노인결연 후원금지급 긴급의료서비스	건강교육 범죄예방훈련 건강클럽
↓ 낮음	서비스 목표 노인	병약한 노인을 위한 시설서비스	거동 가능하지만 노쇠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

←<의존적 생활>---독립성-----<독립적 생활>→

3) 노인복지시설의 형태와 교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방법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노인대학의 운영 정도를 훨씬 초월한다.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설형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요구와 교회의 역량을 점검하여 어떤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 자체의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여러 교회가 같이 연합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노인의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회 안과 밖의 전문인, 전문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한 시설

- ① 양로시설: 무료, 실비, 유료
- ② 그룹 홈

나) 재가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시설

- ① 주간보호소(day care) 및 단기보호소(respite care)
- ② 노인정 및 노인복지회관
- ③ 노인종합사회복지관
- ④ 노인상담소
- ⑤ 노인학교 및 노인오락센터

다)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시설

- ① 노인요양시설: 무료, 실비, 유료
- ② 노인병원 및 치매센터
- ③ 호스피스센터

교회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교회가 직접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 ② 교회가 지역사회 내 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한다.
- ③ 교회 내에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교회가 신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신도들이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하며 교회는 이를 후원한다.

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연합사업은 다양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할 수도 있다.

III. 결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생의 완성

노년의 의미는 인생주기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해방되어서 마음을 확대시키는 다시없는 기회라는데 있다. 이 시기의 인간은 좀 더 넓고 시원한 쪽으로 진보할 수도 있고 좀 더 좁고 답답한 편으로 밀릴 수도 있다. 폴 튜니어는 “흠모할 만한 노인이란 넓게 마음을 열고 이해력을 가지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발휘하며, 관대하고 진실하고 흠모할 만 하고 질투가 없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아무 것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지만 생명의 위로와 격려를 주려는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 한다(주선애, 1995에서 재인용). 아름다운 노인이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많은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풍요로운 노년을 말한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모든 이해관계에서, 욕심에서부터 해방된 풍요로운 유모어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말년에 풀 한 포기물을 즐기며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며 항상 새롭게 느끼며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승리로 수용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老化라 할 수 있으며(주선애, 1995), 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인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Mayeroff(1972)가 ‘돌봄의 목회(caring ministry)’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안하였듯이 노인의 가능성과 제한성에 관한 지식을 갖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경청과 관용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특히 그들 자신이 불투명한 미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노년’이란 어떤 것일까?

첫째, 의존적인 노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노인이다. 신체와 정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인은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쉬운, 때로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데 의존성이 높은 노인은 가족이나 주위의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기 어렵다. 건강한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그가 병약하여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노인은 품위를 지키며 자기의 신변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노인 스스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닫힌 노인이 아니라 열린 노인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노인은 폐쇄적이고 고집스러운 자세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자녀, 젊은이, 새

로운 친구를 자기의 주관으로만 보면 불만과 불평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노인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며 오히려 그 변화를 즐길 수 있다. 주위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노인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 문화가 아직 강하게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관심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

셋째, 받는 노인이 아니라 주는 노인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인은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상이 되기 쉽다.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한 노인은 결국 사회적 主流로 인정되기 어렵다. 노인이 갖고 있는 자원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자원을 갈고 닦아서 사회에 유익한 자원으로 전환할 때 노인은 사회적으로 유용성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역할을 찾아 드리는 것,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큰 부담 없이 노인들에게 사는 재미와 의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이다.

위에 정리한 세 가지 관점은 교회가 노인복지 어느 분야에서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노인은 사람이 봐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것이다. 젊음의 아름다움과 노년의 아름다움은 그 질에 있어서 다르다. 오히려 장년을 통해 노년에 이르도록 이러한 특징을 잘 개발한 사람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는 길을 걷는 것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양곤 (1999). 교회노인학교운영의 활성화방안. 『세계노인의 해 기념 세미나』 자료.
- 김동배 (1995).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 『기독교와 사회복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문고 1. 서울: 예안, 144-176.
- 주선애 (1995). 교회노인교육과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노인교육목회연구시리즈 1,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81-98.
- 최성재·장인협 (2002).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허준수 (2001). 교회에서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사랑의 교회 사회복지재단·한국교회 사회봉사연구소 공동 주관, 『제 1회 교회사회사업 아카데미』 자료.
- Becker, A. (1986). A Triad of Innovative Ministries. *Ministry with Older Persons*. Minneapolis: Augsburg. 191-197.
- Kuhn, M. (1977). *Maggie Kuhn on Aging*.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Kuypers, A. & Bengtson, L. (1973). Social Breakdown and Competence: A Model of Normal Aging. *Human Development*, 16, 181-201.
- Mayeroff, M. (1972). *On Caring*. NY: Harper & Row.
- Miller, D. (1981). Adult Religious Education and the Aging. in W. Clements(ed.), *Ministry with the Ag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235-249.
- Shepherd's Centers of America (1990). *Organizational Manual for Shepherd's Centers*, Kansas City, MO.